

Diaspora & Remnant

오이타(大分), 후쿠오카(福岡)에서 홋카이도로 날아 삿포로와 오타루(小樽) 주변을 돌고는 일주일만에 하네다로 향하고 있습니다. 규슈(九州)도 추웠지만 홋카이도의 눈은 규슈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굉장했습니다. 각지를 돌며 교회 건축과 아파트에 대해서 논의하거나 3월에 하게 되는 이사 준비 등으로 분주하게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도쿄에서는 네덜란드 방송국이 오늘부터 3일간의 취재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두가 시간의 흐름을 따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이 자리하고 있는 시대와 장소에서 나름대로 주어진 최대한의 노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후쿠시마로 돌아올 성도님들이 적어질 것 같습니다. 쓸쓸합니다만 한사람 한사람의 귀중한 인생으로 각자가 결단한 것입니다. 고민하는 것은 당연하겠지요. 그리고 우리는 아직도 최종 목표지점에 착지 못한 채 떠돌고 있기에 도쿄에서 재취직을 한 성도님은 이곳에 남고 고민한 끝에 가족이나 친족의 품으로 여행을 떠나는 성도님도 있습니다.

지진재해 직후 뿔뿔이 흩어져 10 개월이나 지났습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빠른 결단을 요구하는 상황이 이어져왔습니다. 지치고 지친 생활 속에서 참고 견뎌야만 하는 인내력이 한계를 넘어선 것 같습니다.

당초에 굳은 결의가 점차 하강선을 걷기 시작하는 것 같은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일년 지나고보니 뿔뿔이 흩어진 성도님들은 각자 발을 들여놓은 땅에서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고, 어떤 성도님은 가까운 교회에 출석하여 터전을 다지고 계십니다. 이는 극히 당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약성서 시대에 바빌론에 포로의 몸으로 끌려간 사람들이 70 년이란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고향으로 돌아가는 사람과 남는 사람 그리고 다른 나라로 여행을 떠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지진재해로 인해 뿔뿔이 흩어진 '디아스포라 · Diaspor' 그리고 남겨진 '렘난트 · Remnant' 의 백성은 몇 번이고 유랑을 되풀이하며 무리가 갈래 갈래 갈라져서 각각의 여러 드라마를 만들어낸 것이지요.

이것 또한 지진재해 후의 모습이겠지요. 과연 이러한 급박한 상황은 언제까지 계속되겠는지요?

그런데 캠프장에서 10 개월간 같이 생활하며 도와주신 독일인 선교사인 옷케루토 선생님이 3 월에 발매할 '속편·유랑의 교회'의 문장을 기고해 주셨습니다.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보살핌과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 월 30 일(월) 은세계 샷포로 상공에서
사토아키라(佐藤彰)